

## 6. 공간의 일치/ 불일치

**유형** : 역대 수능, 모평에서 공간의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 총 3집합

역대 수능, 모평 출제 횟수 : 7회 + α

**출제 경향** : 공간의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는 '1. 지문에서 공간 A와 공간 B가 있을 때, 그 두 공간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 2. 지문에서 공간 ㉠~㉡가 있을 때 의미하는 공간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나뉜다. 다음 예시 들을 통해 공간의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에 대해 연습해보자.

### 사례 1. 2009 09 평가원 47번 문제 ①번 선지

☞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어둠이 짙 깔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는 지금(1)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을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중략)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지문|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중략)

그는 지금(2)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 오상원, 「모반」 -

|선지|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 분석

그는 **지금(1)**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 지문  
| 캡처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그는 **지금(2)**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1)의 공간적 배경은 ‘가로수에 기대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2)에서 주인공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있는 공간은 방 안이다. 즉, 지금 (2)에서 주인공은 ‘어머니가 계신 방 안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지금(1)과 지금(2)의 공간적 배경은 서로 다르다.

| 지문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

| 선지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사례 2. 2009 06 모평 31번 문제 ①번 선지**

☞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 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 지문

(중략)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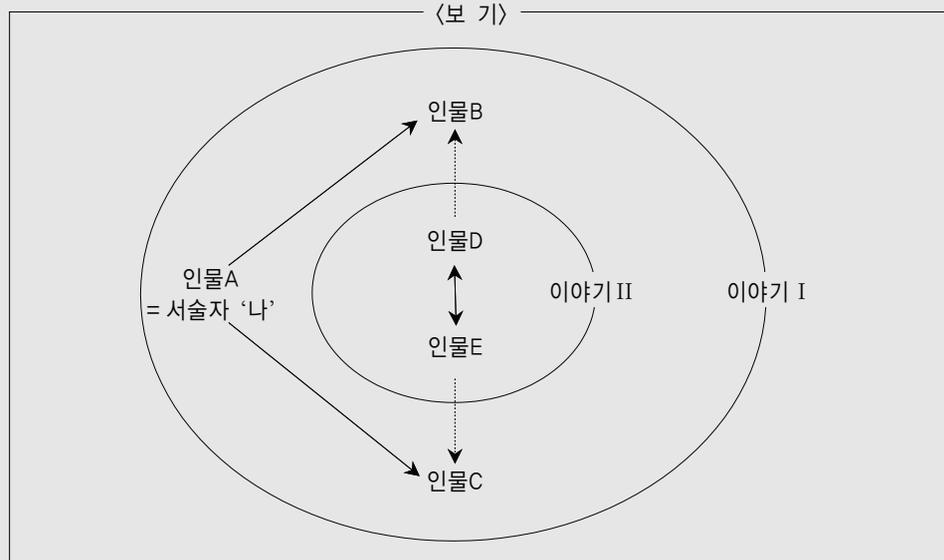
|지문|

어렵잖아.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곳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언, 「신열(身熱)」 -

|문제|

31.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X)

※ 분석 : 위 소설에서 서술자인 내가 교장 선생님과 재종숙 어른을 만나는 사건이 ‘이야기 1’이고 김만호와 강목사의 갈등이 중심 사건인 ‘이야기 2’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야기 1과 이야기 2의 공간적 배경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교장 선생님과 재종숙 어른의 대화가 진행되는 공간도 ‘이 지역’이고 옛날에 김만호와 강목사의 갈등이 있었던 곳도 ‘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문|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

|선지|

이야기 I 과 이야기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 3. 2009 수능 39번 문제 ③번 선지**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지문	<p>#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툰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p> <p>#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p> <p>#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찢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p>
선지	<p>③ 주 플롯(식구들의 이야기)과 부 플롯(영희, 우철의 이야기)은 #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X)</p>

※ 분석 : #94에서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는 장소는 #92에 나와 있는 레스토랑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장소는 #93에 나와 있는 불이의 집 마당이다. 따라서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배경을 가진다.

지문	<p>영희와 우철이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먹는다 + 식구들이 집 마당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p>
≠	
선지	<p>주 플롯(식구들의 이야기)과 부 플롯(영희, 우철의 이야기)은 #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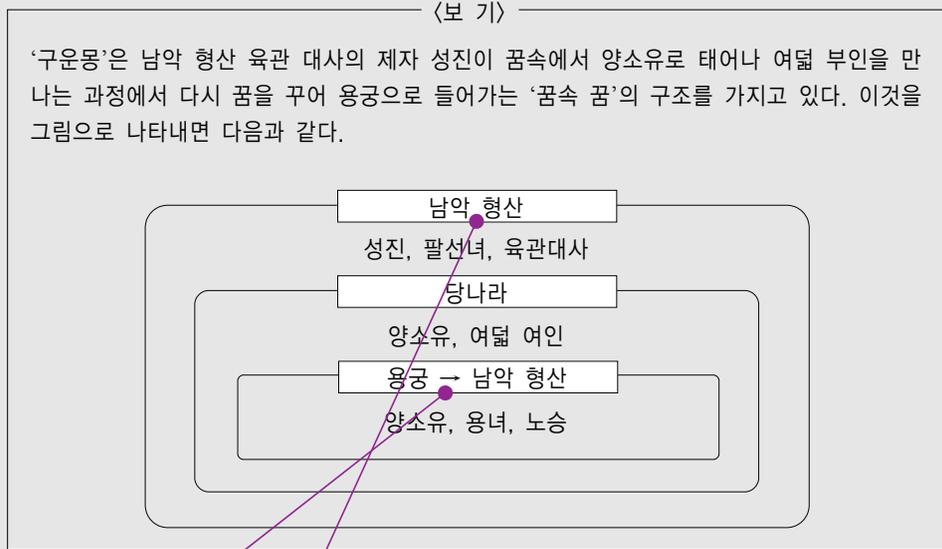
사례 4. 2007 06 평가원 25번 문제 ②번 선지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문제|

2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 분석 : ②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을 전혀 보지 않고 보기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다. 위의 보기에서 현실의 ‘공간적 배경 = 남악 형산, 꿈속 꿈의 공간적 배경 = 남악 형산’으로 꿈속 꿈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동일, 연결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 5. 2010 06모평 32번 문제**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지문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 우러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쫓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질 듯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 않는 듯했다.

(나) 소향로 대향로 같은 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녀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 듯 하구나  
 아아 조물주의 그 재간 놀랍기도 하구나. /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나 말지.  
 ㉤ 연꽃을 꽃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 동해를 박치는 듯 북극을 괴었는 듯.

문제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분석 : 정답은 ㉤이다. 이 문제는 ㉠~㉤ 중 묘사하는 공간이 다른 곳을 고르면 된다. ㉠~㉣은 지문에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리하다'라고 나와 있듯이 천봉만학(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의 기괴한 형상에 대해서 이름 붙여 묘사하고 있다. ㉤ 역시 금강산의 봉우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은 사람이 길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묘사하는 공간이 다른 곳은 ㉤이다.

**사례 6. 2006 수능 29번 문제**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중략)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뺨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짝이 튼다. 그 닻곱 한 되도 안 되는 흙 위에도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 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뺨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목산 : 눈으로 어림셈함.

|지문|

|문제| 29. ㉠~㉤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 분석 : 이 문제 역시 공간의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이다. ㉠~㉣는 지문에 나와 있듯이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으로 둘러막은 천 평 이상의 공지**’를 말한다. ㉤는 글쓴이가 물을 준 화분을 지칭한다. 따라서 ㉤가 의미하는 공간이 다르므로 정답이 된다.

사례 7. 2004 수능 29번 문제 ②번 선지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앞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지문|

(중략)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욕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녹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선지|

② ‘중국인 거리’는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

※ 분석 :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글의 서술자인 내가 사는 곳은 ‘중국인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글의 서술자인 내가 사는 곳인 ‘중국인 거리’와 내가 태어난 곳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라는 글의 내용을 통해서 글의 서술자인 내가 지금 사는 곳과 태어난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중국인 거리’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중국인 거리에 처음 왔을 때의 냄새인 해인초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중국인 거리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인 거리에 처음 왔을 때 맡았던 해인초 냄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